

브리지스톤 타이어,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3년 연속 후원

- 브리지스톤 타이어, 슈퍼레이스 프리우스 PHEV 클래스에 3년 연속 타이어 공급 및 장착 서비스 지원
- 고성능 스포츠 타이어 '포텐자(POTENZA) RE-71RS' 지속 공급
- 제품 구매부터 모터스포츠 관람까지 이어지는 고객 경험 제공

서울 (2026년 4월 13일) — 전세계 타이어 및 고무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브리지스톤의 국내법인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대표이사 김헌영, www.bridgestone-korea.co.kr, 이하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대한민국 최고 권위 모터스포츠인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프리우스 PHEV 클래스' 후원을 3년 연속 이어간다.

브리지스톤 타이어는 2024년부터 해당 클래스에 참여해 왔으며, 올해도 참가 팀과 드라이버들에게 타이어를 공급하고 장착 서비스를 지원한다.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프리우스 PHEV 클래스에 공급하는 '포텐자(POTENZA) RE-71RS'는 레이스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이다.

프리우스 PHEV 클래스는 동일 차량 기반의 원메이크 레이스로, 드라이버의 주행 역량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브리지스톤 타이어는 제품 구매부터 모터스포츠 관람까지 이어지는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타이어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슈퍼레이스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브리지스톤 타이어 제품을 구매하고 보증 등록을 마친 고객이 응모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 슈퍼레이스 각 경기별로 60 명을 추첨해 개인당 2 매씩 관람권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브리지스톤 타이어 대리점 및 취급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브리지스톤 타이어 김현영 대표이사는 “브리지스톤이 2024 년부터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참여하기 시작해 올해로 3 년째를 맞이했다. 모터스포츠는 제품 성능과 브랜드 가치를 고객과 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으로, 모터스포츠를 통해 고객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지스톤은 모터스포츠를 타이어 제조의 출발점이자 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다. 레이스에서의 도전과 성과를 통해 축적된 경험은 지속 가능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고객과 사회, 파트너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 모빌리티의 가치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브리지스톤의 모터스포츠 활동은 “Passion to Turn the World®”, 즉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이라는 메시지로 활동 목표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모터스포츠를 통해 도전과 진화를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레이싱 환경에서 얻은 데이터와 피드백은 브리지스톤이 타이어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밑바탕이 되고 있다. “타이어는 생명을 운반한다”는 제품 개발 철학은 제품 개발의 전과정을 관통하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모터스포츠를 ‘이동 실험실(Mobile Laboratory)’로 활용해 극한의 조건에서 검증된 기술을 일반 도로용 타이어 개발에 연결하는 ‘서킷에서 도로까지’(From Circuit to Street)의 개념을 실현하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Bridgestone E8 Commitment’의 여덟가지 가치 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빌리티의 즐거움을 확산한다”는 Emotion 가치를 이러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모터스포츠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모터스포츠는 브리지스톤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모터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이어갈 것이다.

###